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Pre-Biennale

A PRO  
LOGUE  
TO NON-  
SCULPTURE

## 비조각의 프롤로그

전시기간 \_ 2019. 12. 04(수) ~ 12. 22(일)

전시장소 \_ 성산아트홀 제4전시실(2층)

개막식 \_ 2019년 12월 04일(수) 오후 5시  
성산아트홀 제4전시실

## 목차 Contents

### 03 \_ 초대글

강제규\_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 04 \_ 인사말

김정희\_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황무현\_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김성호\_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 07 \_ 기획의 글

손지영\_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팀 과장

김숙경\_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 08 \_ 강동현 작가 약력·작품

### 10 \_ 김근재

### 12 \_ 김기영

### 14 \_ 김동숙

### 16 \_ 김민성

### 18 \_ 김성민

### 20 \_ 김재각

### 22 \_ 노순천

### 24 \_ 도태근

### 26 \_ 박봉기

### 28 \_ 박정윤

### 30 \_ 신예진

### 32 \_ 양리에

### 34 \_ 오혜선

### 36 \_ 이상길

### 38 \_ 이정희

### 40 \_ 이후창

### 42 \_ 임수빈

### 44 \_ 장용선

### 46 \_ 전종무

### 48 \_ 정기웅

### 50 \_ 정택성

### 52 \_ 최수환

## 초대글

강제규\_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쉽 없이 달려온 2019년 한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20년에 대한 설렘은 다른 해와 달리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내년은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가 5회째를 맞이하는 해이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그간의 역대 비엔날레 감독들과 스태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비엔날레로, 창원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재 총감독과 추진위원,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번 프레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비조각의 프롤로그」 전시로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미술이라고 하면 회화 즉 평면 작품이 먼저 떠오릅니다. 관람하기 쉬운 그리고 이해하기 편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각 작품에 한 발짝 쉽게 다가가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비조각의 프롤로그」 전시에는, 국내에서 활발히 작업하는 작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재료와 표현으로 관람객들이 비조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조각 작품만이 가지는 입체적 크기의 다양성, 재료와 물질의 특성 등 시각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에 함께 참여해준 23명의 참여 작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시를 시작으로 내년 2020창원조각비엔날레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김정희\_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 조각의 자기 성찰을 위하여

이번에 창원문화재단과 한국조각가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비조각의 프롤로그》전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프레 전시를 공동 주관하면서 조각비엔날레의 현재를 다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조각가협회가 기획의 주체로 동참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조각 단체인 '한국조각가협회'는 1985년 창립한 이래 올해 35주년을 맞이까지 1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한국 현대조각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각 언어의 확장, 조각가의 창작 진흥, 신진 작가의 발굴과 육성은 물론이고 대규모의 조각 축제인 '서울국제조각페스타'를 9회째 개최해 왔습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조각 예술인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건강한 조각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무궁한 발전을 항상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인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를 미리 살펴보는 이번 전시의 제목은 '비조각의 프롤로그'입니다. 조각의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을 화두로 한 주제를 조각가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가 관객에게는 조각의 또 다른 방향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조각가에게는 지금까지 실험하고 연구해 왔던 자신의 작업을 겸허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인사말

황무현-2020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위원장, 마산대교수

###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조각은 사전적으로 3차원의 공간 속에 구현된 구체적인 물질로서 강하고 견고한 양감(量感: volume)의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조각은 그 형태와 재료의 물질적 특성을 감지할 수 있는 예술로, 구체적인 물질을 소재로 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3차원적 입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특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오브제’ 작업 이후 ‘만든다’는 행위에서 ‘선택한다’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뒤샹 이후 손기술과 노동의 시간이란 조각 제작 과정의 물리적 조건과 전제는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공학의 발달과 모바일 환경은 조각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는데, ‘테크놀로지 아트’를 비롯한 새로운 장르는 조각의 전통적인 조형요소인 덩어리(mass), 양감, 질감, 비례 등에 비조각 개념의 역설적인 가벼움과 유연함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설치 작업의 급속한 부상과 함께 조각의 양적,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조각 개념과 조각에서의 가벼움과, 유연함이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가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로 정해지고, 이에 앞서 Pre-Biennale 형식의 현대 조각전을 기획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이 전람회는 김성호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의 비조각 개념과 조각에서의 가벼움과 유연함을 드러내는 시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김성호\_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 비조각의 개념과 조형적 실천

올해의 《비조각의 프롤로그》전은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프레 행사 중 하나입니다. 내년의 비엔날레 주제인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Non-Sculpture – Light or Flexible)》의 개념과 의미를 미리 살펴보는 전시라는 점에서 ‘프롤로그’라는 용어를 내세웠습니다.

조각비엔날레에 ‘비조각’이라니요? 이번 비엔날레의 ‘비조각’이란 용어는 세 곳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미술사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조각이 풍경과 건축을 만나는 방법’을 비롯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즉 그녀가 논문에서 비풍경(not-landscape)과 비건축(not-architecture)이라는 ‘모순적 관계 만들기’를 통해서 조각이 풍경과 건축을 만날 수 있게 했다면, 이번 비엔날레는 조각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비조각(non-sculpture)을 통해서 조각이 ‘조각 아닌 모든 것들’과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조각가 이승택이 「내 비조각의 근원」(1980)이라는 에세이에서 서구의 근대 조각의 유산에 저항하면서 ‘조각을 향한 비조각적 실험’을 천명했던 ‘비조각’이라는 개념을 고스란히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넓게는 동양과 한국의 ‘비물질의 미학’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비조각의 프롤로그》전이 어떻게 이러한 개념을 조형적으로 선보이고 있는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기획의 글

손지영\_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팀 과장

김숙경\_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전시 <비조각의 프롤로그>는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전시로 한국의 현대 조각계에서 총 23명의 청·장년작가들이 참여한다.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란 내년 비엔날레 주제 아래 조각이 그 전형을 기반으로 새롭고 실험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객은 이를 통해 한국 현대조각의 현주소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근대 조각의 출발점인 오귀스트 로댕은 자신의 역작인 "칼레의 시민"을 광장에 설치할 당시 조각의 위상과 규범을 상징하는 좌대를 낮게 설치하여 그의 작품과 시민들의 눈높이를 최대한 같게 하려 노력하였다. 그 후 나움 가보는 1923년 작 "기둥"에서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 소위 말하는 '혼합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조각에서 물질이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하였다. 100여 년 후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조각 작품의 한계는 어떤 것일까? 무엇으로 만들 수 있으며,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조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로서 '비조각'의 개념은 조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 작가는 예술이라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일반적 현실과는 다른 길을 가거나 그의 미적 세계를 현실 관계에 병치해 놓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들을 찾게 된다. 본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그들의 세계를 앞서 말한 비조각의 성격이나 비조각적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조각이라는 무게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철과 같이 딱딱하고 무거운 소재를 살짝 가볍게 구부려 놓은 듯한 형태로 치환하거나, 작품의 구조가 훤히 보이게 하여 부피감은 있지만 가벼운 호흡이 느껴지는 작업들을 보여 준다. 또 어떤 경우는 미완성적이면서, 비사실적이나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미적 환경을 만들어 낸다. 나무를 재료로 한 작업들

은 그것이 지닌 날것의 물성과 마티에르에서 감지되는 자연의 시간성을 유지하면서도 목조각이 주는 인습적 조형성을 넘어 추상적 형상으로 거듭나며, 어느 장소에서는 작가가 구가하는 '서사의 본질'로 작용하고 있다. 조각의 전형적 재료인 철과 나무 이외에 제3의 물질로 이루어진 작업들은 그 물질과 형태 위에 색을 입혀 가볍고 유연한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바닥에 세워지는 조각이 아닌 천장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선형적인 조각들은 공간에 유기적으로 확장하는 반전을 가져와 관객에게 조각의 낮설음을 선사한다. 여기서 제3의 물질이란 어떤 범주에도 한정적이지 않으며, 작가들에겐 그들이 작업 앞에서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재화와 같은 것이다. 한 작품의 제작에서 재료와 형식의 차별화는 우리에게 관습에 반한 사고를 유도하고, 관객은 그 앞에 머물며 비경험적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정형화되고 연마되어 있는 조각이 아닌 그 외의 조각을 우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조각가 최종태 선생(1932~)은 어느 한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자코메티의 말을 빌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라고.

---

## 강동현 Kang, Dong-Hyun

1977. 한국 경남 고성 출생

미술학사, 창원대학교, 한국

미술학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창원, 한국

### 개인전

- 2018. 공존의 숲 (갤러리 거제, 거제)
- 2016. 공존의 숲 (부산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부산/구복예술촌미술관, 창원)
- 2015. 공존의 숲 (거제해금강테마박물관, 거제/스페이스1326, 창원)
- 2014. 공존의 숲 (상상갤러리, 서울)
- 2005. 나+無 (성산아트홀, 창원)
- 2004. 숲 (성산아트홀,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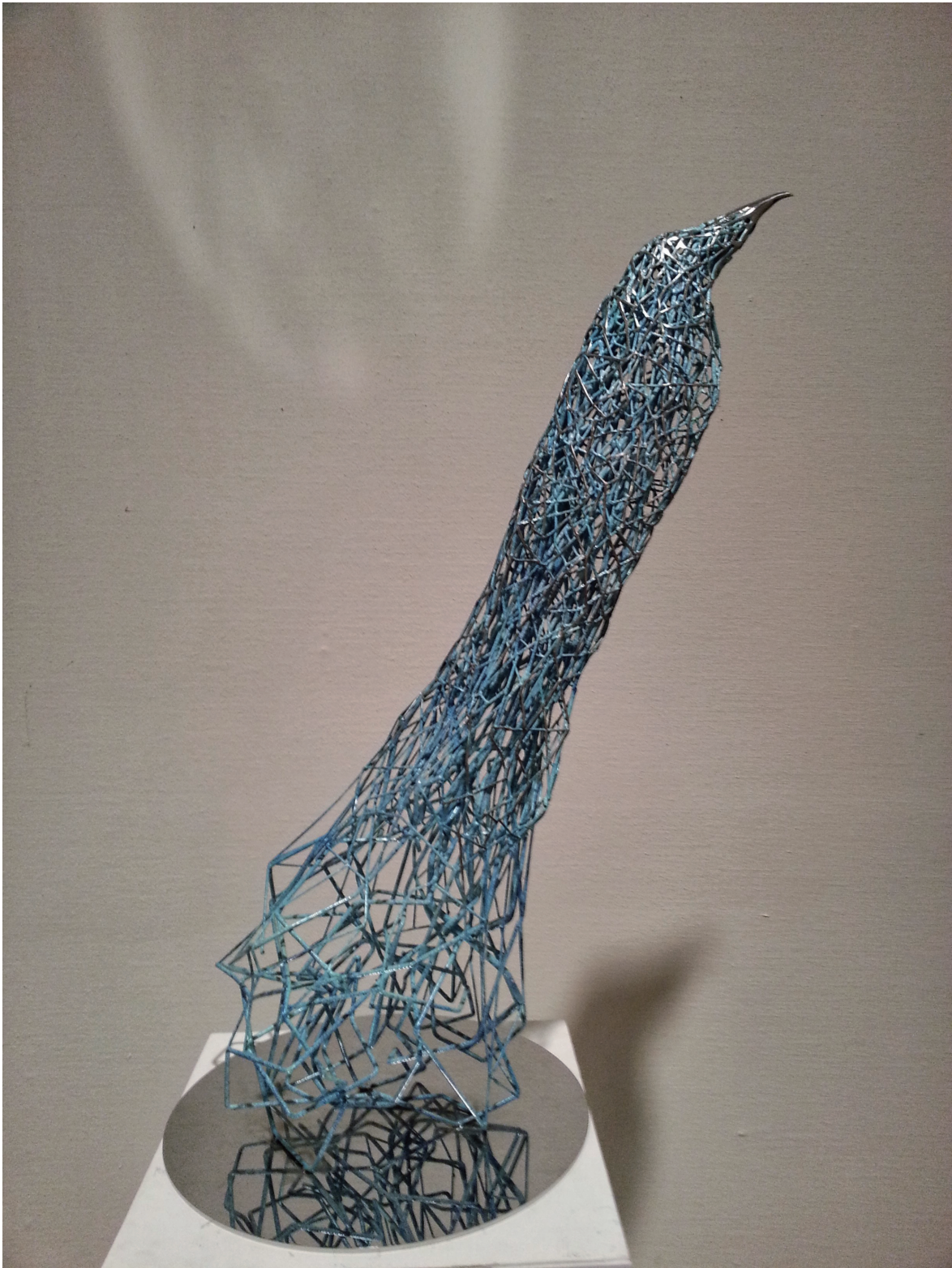
### 단체전

- 2019. 별에게 말을 걸다 (성산아트홀, 창원)
- 2019. 이팔청춘 아트 페스티벌-동감 (통영RCE세자트라쇼, 통영)
- 2019. 전국조각가협회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 2019.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전 (성산아트홀, 창원)
- 2019. 경남미술 100인 특별전 (성산아트홀, 창원)
- 2019.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전 (문신미술관, 창원)
- 2019. 한·중 교류전 (무풍갤러리, 중국 송징)

---

나무가 모여 만들어진 숲에는 그로 인해 만들어진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한다.  
물에서 시작된 생명들은 끝없는 변화를 시도한다.  
생명이 모여 생명을 만들고, 그러한 현상들은 또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보이지 않는 끈, 즉 연결성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공존의 숲 | 2019 | 스테인리스 스틸 | 200(h)×150×80cm

---

## 김근재 Kim, Guen-Jae

1969. 한국 경남 진주 출생  
미술학사, 창원대학교, 한국

### 개인전

- 물을 보다.

### 단체전

- 2017. 공존의 법칙 (경남도립미술관)
- 2017. 아시아 현대 미술제 (창원 성산아트홀)
- 2007. 성산미술대전 초대전 (창원 성산아트홀)
- 2002. 동서미술의 현재전 (광주 문화회관)
- 1997. 경남미술대전 초대전 (진주 문화회관)
- 1997. 아시아 현대조각전 (부산문화회관)

---

동물과 식물등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산소를 빼앗기고  
분해되면서 또다른 여러 원소들과 재조합되면서  
전혀 다른 각체로 윤회되는데 작가는  
그 과정을 조형화 하였다.



질량보존법칙-환원 | 2019 | 스테인레스 스틸, 유목 | 1200×1200×4200mm

## 김기영 Kim, Ki-yeoung

1980. 한국 충북 청주 출생

미술(조각)과 학사 및 석사, 충북대학교, 한국

미술(조각) 박사, 교토시립예술대학교, 교토, 일본

### 개인전

- 2019. 개인전 Poetic Moment (해운대 아트센터)
- 2016. 개인전 IN SIDE OUT (STEPS 갤러리, 동경)
- 2015. 개인전 Poetic Moment (同時代 갤러리, 교토)
- 2010. 개인전 KARMA (is 갤러리, 서울)
- 2009. 개인전 멍에 (Kosa space, 서울)

### 단체전

- 2019. 서울 국제조각페스타 (서울 한가람 미술관)
- 2019. 모스크바 국제작품초대전 (모스크바 국립미술관)
- 2019. 퍼듀대학 국제작품초대전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학)
- 2019.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 (이천 설봉공원)
- 2019. 충칭대학교교류전 (부산대학교, 중국 충칭대학교)
- 2019. 서울미술계는 안녕하십니까? (서울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 2019. BAMA 국제 아트페어 (부산 벅스코)
- 2019. 영·호남 교류전 (부산 금련산 갤러리)

평범한 의자를 대상으로 깎아내는 행위를 통해 의자의 형상은 지니되 의자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비가역적 상황을 내포하는 조각 작품이다. 작가의 반복된 깎아내기를 통해 최소한의 형태만 유지하는 상황에 내몰린 '의자'는, 효용 가치와 존재 가치 간의 등가 법칙이 적용되는 공산품에게 있어 기능성의 부재는 곧 존재 가치의 부정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지, 의자의 원형으로 관념 세계속에 존재하는 이데아 (Idea)의 표상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Poetic Moment | 2019 | wood carving | 70x185



Poetic Moment | 2019 | wood carving | 70x70x80

---

## 김동숙 Kim, Dong-Suk

1963. 한국 경남 진해 출생

미술학사, 경남대학교, 한국

미술석사, 레핀국립예술아카데미,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개인전

- 2014. 류 미재 미술관 초대전 (양평, 경기도)
- 2008. MBC 신춘기획 김 동숙 조각초대전 (MBC 방송국아트홀, 마산)
- 2003. Negative & positive (인사갤러리, 서울)
- 2003. Negative & positive (진해시민회관, 창원)
- 1998. 레핀 국립예술 아카데미 미술관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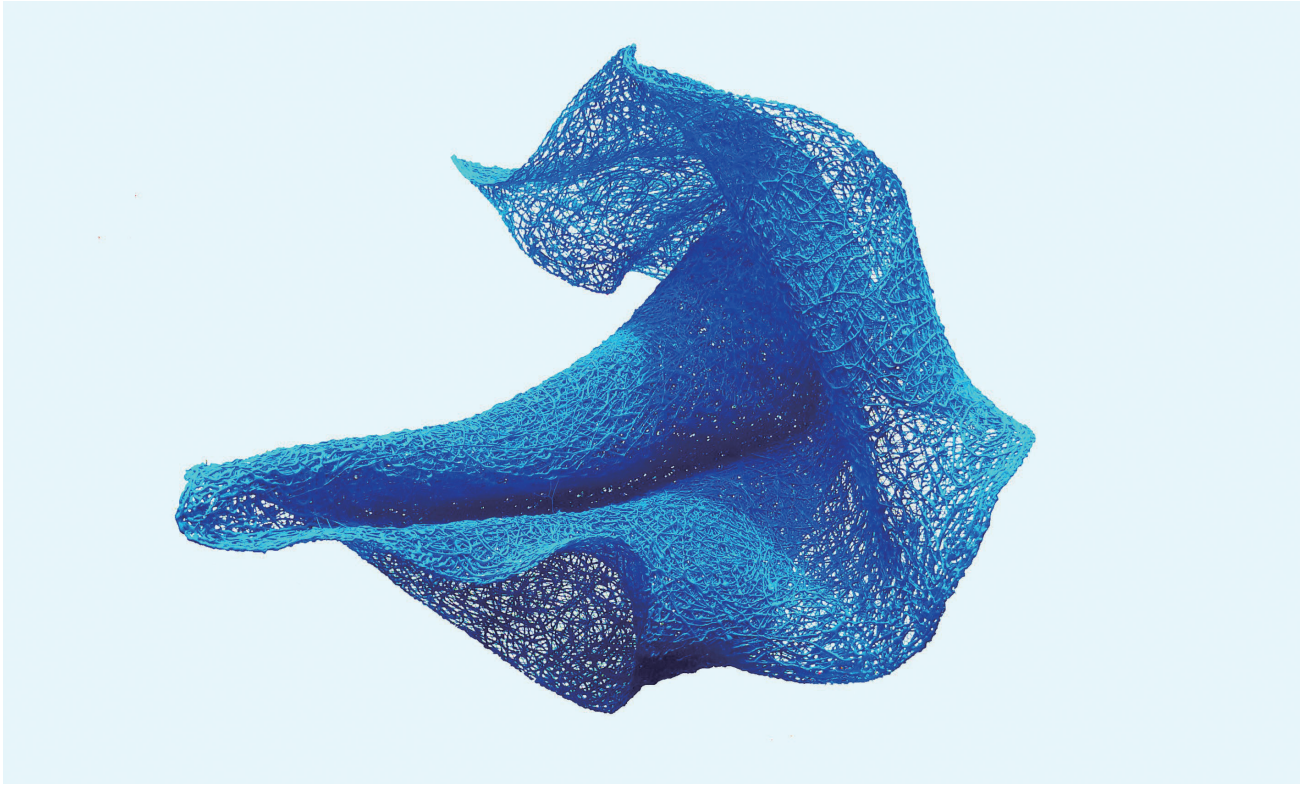
### 단체전

- 2019. 경기도 작가전 (성남아트홀, 경기도)
- 2018. 제16회 너른고을 미술제 (영은미술관, 경기도)
- 2017. 흑 백 회전 (성산아트홀, 창원)
- 2015. 빛 & 맥전 - 김종영탄생100주년 기념 (성산아트홀, 창원)
- 2011. 20세기 경남 미술 조각전 (경남도립 미술관, 창원)
- 2009. 개관 기념전 (Ars Gallery, 서울)
- 2008. 경기 도립 미술관기획 초대전 - 이미지반전 (경기도 미술관)
- 2008. Internationale kunstausstellung in Deutschland (프랑크푸르트, 독일)
- 2003. 한일 미술 교류전 (진해)
- 1999. 극장을 찾는 사람들 - 공간편 (국립 중앙극장, 서울)

---

우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형상에 익숙하여, 모든 대상을 고착화 된 사고와 한정된 상상력으로 생각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이에 우주의 오로라나, 하늘의 구름, 생성과 소멸되는 액체의 뒤 썩임 같은 어떤 특정 할 수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여 각기 다른 다양한 사고의 확장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Some Shape I | 2019 | 혼합 재료 | 950x750x700mm



Some Shape II | 2019 | 혼합 재료 | 1800x1200x1200mm

## 김민성 Kim, Min-Sung

1972. 한국 대구 출생

미술학사, 창원대학교 미술학과 조각 전공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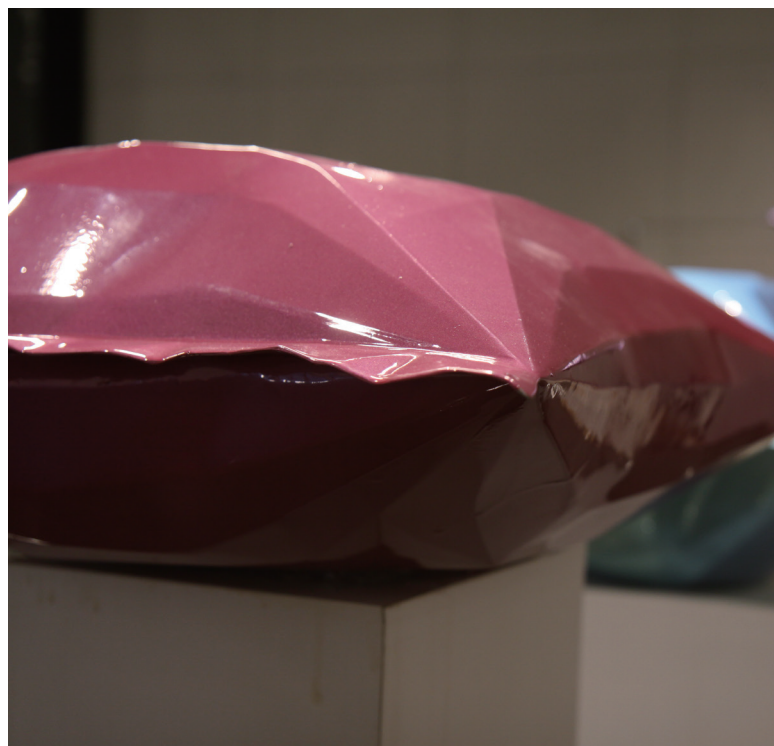
미술학 석사,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 조각 전공, 한국

### 개인전

- 2019. 조현욱 아트홀
- 2018. 슌갤러리
- 2018. 경남 아트페어 부스전

### 단체전

- 2019. 한중일 국제교류전
- 2019. 수조각회
- 2018. 창원아시아미술제
- 2015. 바다미술제



사유조형 2019 | 2019 | 철,우레탄 도장 | 가변설치

부분이 일부임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사유를 지니기를 위해 융합적 기술의 진보와 다각적 시도를 통하여 조형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반복되는 유형에 따라 절제된 표현과정, 정지된 화면과 같은 규범에 얽매이는 패턴을 구분하여 접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연성과 새로운 형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사유조형 2019 | 2019 | 철,우레탄 도장 | 가변설치



사유조형 2019 | 2019 | 철,우레탄 도장 | 가변설치

## 김성민 Kim, Sung-Min

1983. 한국 부산 출생

예술대학 조각전공 학사, 신라대학교, 한국

일반 대학원 예술대학 조각전공 석사, 신라대학교, 한국

창업 예술학부 융합예술학 박사 수료, 신라대학교, 한국

###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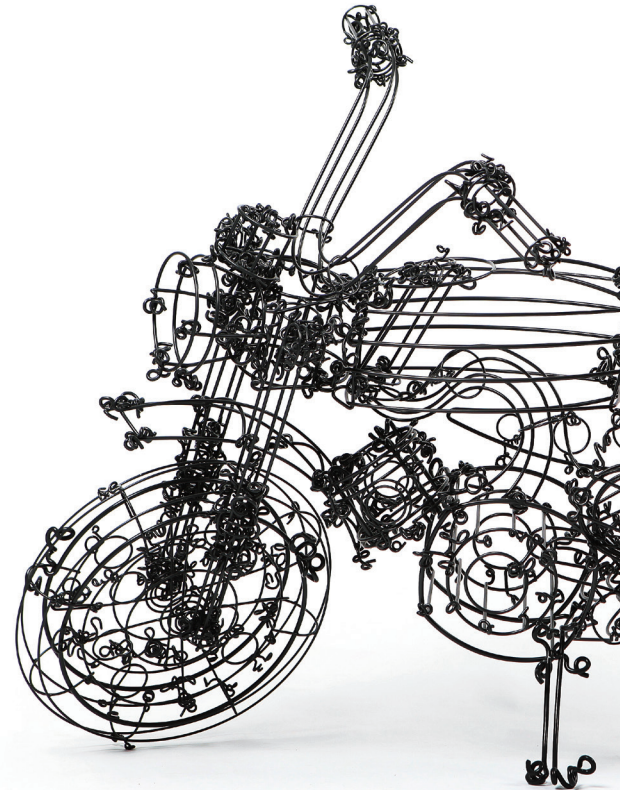
- 2019.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2018. 오늘의 작가상 수상 기념전 (갤러리 움)
- 2018. WAY-OUT 김성민 조각展 (미부 아트센터)
- 2015. BAMA 특별 부스전 (BEXCO)
- 2015.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2014. WAY-OUT 김성민 조각展 (우 갤러리)
- 2010. 김성민 조각展 (부산 시립 미술관/시민갤러리)

###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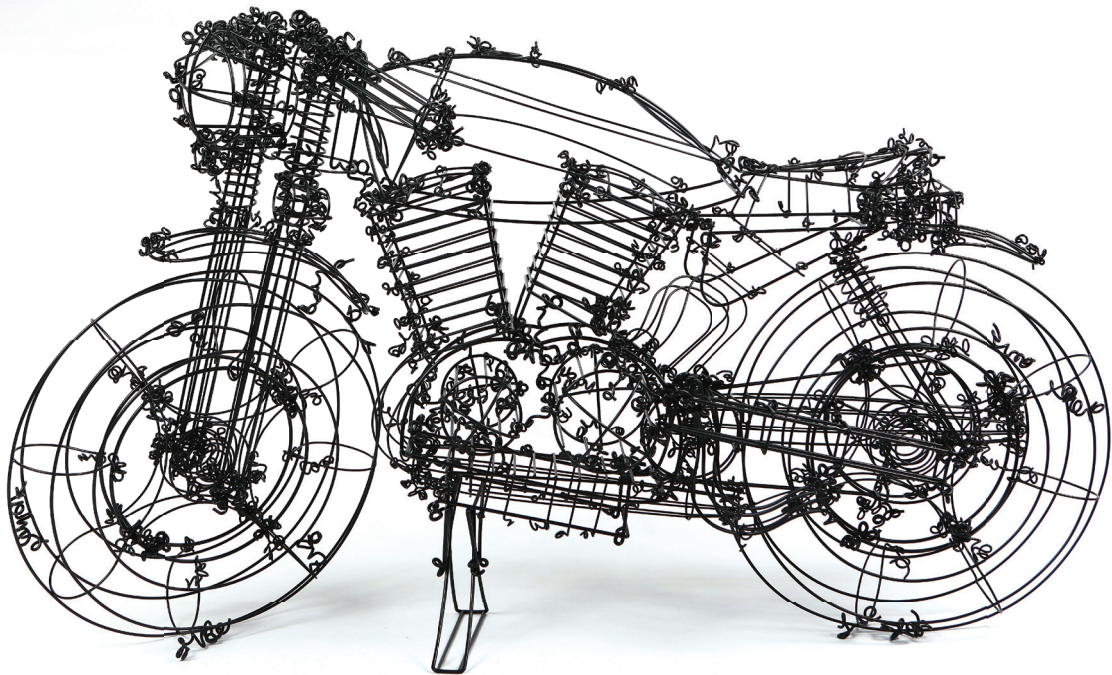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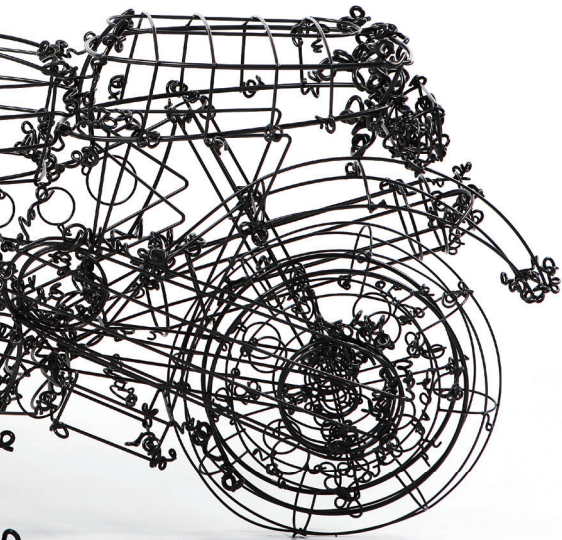
- 2019. 부산 초대작가상 수상기념전 (금련산 갤러리)
- 2019. 부산 청년 작가전 (금련산 갤러리)
- 2019. 서울 국제예술 박람회 (COEX)
- 2019. 델문도 갤러리 개관 초대전 (제주 델문도 갤러리)
- 2018. 강정 현대 미술제 (대구 강정보 디아크)
- 2018. 크라운해태 200인 조각전 (COEX)

선적 표현은 내면적 감성을 표출하게 하고 억압된 현실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자유를 지향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선은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간결하고도 복잡한 드로잉들로 표현 되어지고 있다.



탈출구 WAY-OUT | 2013 | STEEL | 1350 x 750 x 950mm



탈출구 WAY-OUT | 2013 | STEEL | 1500 x 600 x 900mm

---

## 김재각 Kim, Jae-Gak

1979. 한국 강원 영월 출생

환경조각학과학사,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예술원 조소과 석사, 동북사범대학교, 장춘, 중국

### 개인전

- 2016 “Multiple Illusion”, Palais de Seoul 신진작가 공모 초대전  
(갤러리Palais de Seoul, 서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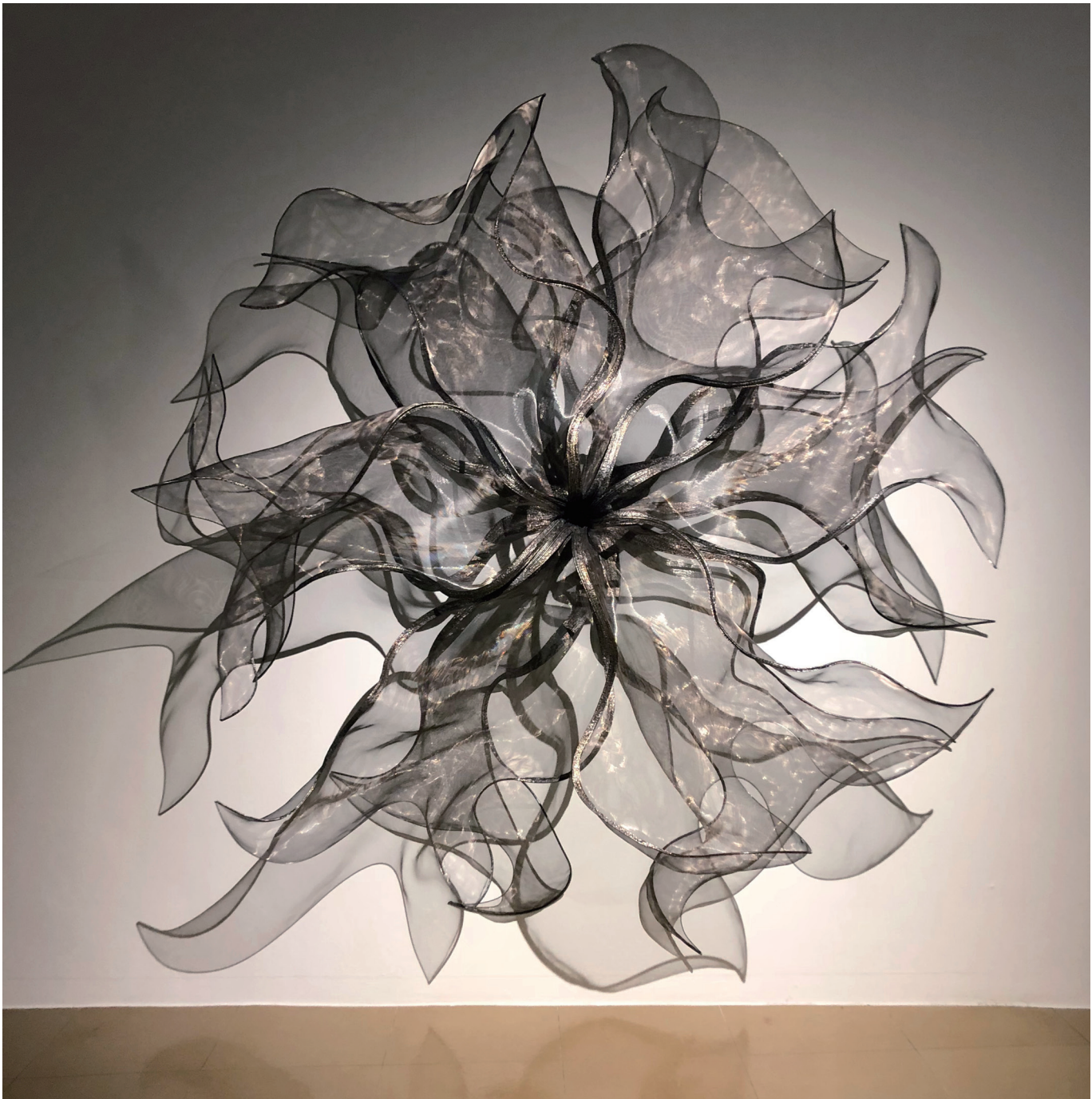
### 단체전

- 2019. 호모심비우스-크라프트베르크 (당인리발전소 앞, 정촌빌딩, 서울)
- 2019. 옆집에 사는 예술가 김포, 경기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김포)
- 2019. 제9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9. 창원 청년 아시아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 2018. 불로장생전,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 2018. 수창동. 아트-브릿지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7. China East Lake Young Sculptors Inviting Exhibition 2017 (우한시, 중국)
- 2017. 의외로 심플한 현대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전북 완주군)
- 2016. 항주 만신구 국제조각전 (항주시, 중국)
- 2016. Steel material message '철이 전하는 메시지'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복합적 오해 (Multiple Illusion)

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 또는 사람, 자연에서 발견한 이미지들을 재해석 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재료의 투과성으로 인해 공간이 연결되고 중첩되어 또 다른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관람자의 기억과 선택을 통해 다시 한 번 또 다른 이미지로 규정 되면서 더욱 모호한 추상적인 형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는 나와 작품, 관람자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Multiple Illusion – Spot of Time #1**  
2018 | stainless steel, wire netting, welding | 250x60x260(h)cm

---

## 노순천 No, Soon-Cheon

1981. 한국 경남 마산 출생

미술학사 조소전공, 창원대학교, 한국

미술석사 조소전공, 창원대학교, 한국

### 개인전

- 2018. 〈Between Lines〉 도나아트 (타이페이)
- 2018. 〈13266231〉 스페이스1326 (창원)
- 2017. 〈얼굴〉 소담갤러리 (창원)
- 2017. 〈선적조각〉 대림창고 (서울)
- 2015. 〈하얀선展〉 스페이스1326 (창원)

### 단체전

- 2018. 〈철-인〉 F1963 (부산)
- 2018. 〈히든아일랜드〉 누에섬 (안산)
- 2018. 〈불 꺼진 우신장〉 우신장 (창원)
- 2018. 〈흑백의 시간〉 소다미술관 (화성)
- 2018. 〈핵노잼〉 로그캠프 (창원)
- 2017. 〈10,000 Arts 10,000 Acts〉 서울숲길 골목 (서울)
- 2017. 〈UN:LOCKED 공공의집〉 굿모닝하우스 (수원)
- 2017. 〈의식의 지향성〉 갤러리거제 (거제)

---

나의 Portrait(肖像)에는 모델이 없다.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철선으로 만들어진 얼굴 생김새는 표정도 행동도 없고 성별도 연령도 없다. 속이 비워져 있는 구부러진 철선이 어딘가 놓였을 때 그곳의 벽 색깔, 바닥 질감, 빛과 그림자 등의 주변 환경 요소들이 표정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감상자와 만나는 동안 감상자의 상태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때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된다. 아이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른의 모습이 되기도 하며 슬퍼 보이거나 기뻐 보이기도 한다.



사유상 | 2019 | 철 | 222(h)x160x130cm

## 도태근 Do, Tae-Keun

1969. 한국 경북 영천 출생  
동아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조각) 졸업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조각과 졸업

### 개인전

- 2017. 제12회 조각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6. 제11회 조각전 (TL 갤러리, 부산)
- 2014. 제10회 조각전 (몽마르트르 갤러리, 부산)
- 2013. 제9회 조각전 (갤러리필, 창원)
- 2012. 제8회 조각전 (그림손 갤러리, 서울)
- 2011. 제7회 조각전 (피카소갤러리, 부산)
- 2009. 제6회 조각전 (시안미술관, 경북영천)
- 2007. 제5회 조각전 (김재선갤러리, 부산)
- 2006. 제4회 조각전 (동경세이카갤러리, 일본)
- 2003. 제3회 조각전 (도시갤러리, 부산)
- 2001. 제2회 조각전 (롯데화랑, 부산)
- 1999. 제1회 조각전 (스페이스월드, 부산)

### 단체전

- 부산비엔날레 초대작가 및 기획, 초대, 단체전 450여회

나의 작업은 형상과 비형상이라는 대립된 구조들의 결합 그리고 질감의 대비를 통한 금속조각을 설치하여 보여준다.

가능화된 사물의 형상 위에 드로잉 하여 쇠를 자르고, 접고, 붙이고, 두들겨 결합된 작업은 다양한 조형의 기호로 표현된다.

단일된 재료인 철의 물성으로 공간과 선, 면에 대하여 새로운 형상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물성과 공간해석에 대한 관계성, 절제된 조형적 감수성을 보여 주고자한다.

또한 설치작품의 비형상적 이미지들은 파노라마 형식의 다양한 추상적 표현과 자연의 다양한 변주와도 같다.



Position - Form | Steel | 1800×4500×1300mm





---

## 박봉기 Park, Bong-Gi

1965. 한국 경남 출생.  
미술학사, 국립창원대학교, 한국  
석사, 중앙대학교, 한국

### 개인전

- 2007. 쿨러갤러리초대 박봉기조각전 (쿨러갤러리, 버몬트/미국)
- 2003. 박봉기작품전 (아트인오리/부산)
- 2002. 박봉기작품전 (성산아트홀/창원)
- 1996. 박봉기작품전 (종로갤러리/서울)

### 단체전

- 2019. 바깥미술 남한강 전-부유하는 섬 (양근섬/양평)
- 2019. 대만국제등축제-핑통 (다평해안, 핑통/대만)
- 2018. 금강국제자연미술Biennale-숲속의 쉼터 (공주/한국)
- 2018. 대지미술-'여름의 미풍이 불고'-타오유안농업박람회 (타오유안/대만)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파이어아트페스타 (경포해변, 강릉/한국)
- 2017. 대만 타오유안 표류목예술제 (핑헤공원, 타오유안/대만)
- 2016. 바덴의 조류潮流-대지예술축제 (블라방드/덴마크)
- 2016. 랜드아트전-A Ciel Ouvert (리호르제/프랑스)
- 2015. 제5회 랜드아트축제 (포드라스키/폴란드)
- 2013. 원시감각예술제 (오마치, 나가노/일본)

---

자연의 작은 부분인 나무의 속을 파내고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유려함, 가볍고 부드러움, 음악적 리듬감.. 등의 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무에 대한 선형된 인식과 관념을 환기시키면서, 점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기적 공존체인 자연의 질서를 생각하게 한다.



호흡 Breath,  
2013,  
나무,  
높이 2.2m,  
Luxembourg

## 박정윤 Park, Jung-Yoon

1989. 한국 서울 출생

조형예술학부 조소전공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일반대학원 조소전공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일반대학원 조소전공 박사 재학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 개인전

- 2019. 제9회 국제 조각 페스타 2019 개인부스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SEOUL/KOREA)
- 2018. <Deep Breathing> 1회 개인전 (갤러리GRAA, SEOUL/KOREA)

### 단체전

- 2019. ROOM展 안재홍, 박정윤 2인전 (카라스갤러리, SEOUL/KOREA)
- 2019. THE DIALOGUE展 (갤러리41, SEOUL/KOREA)
- 2019. 시대쓰임에展 (시대여관, SEOUL/KOREA)
- 2019. YOUTH展 (이상아트스페이스, SEOUL/KOREA)
- 2017. 가상현실展 (한남아트갤러리, SEOUL/KOREA)
- 2017. MAYFLY14展 (시대여관, SEOUL/KOREA) 외 다수



Trappeddreams | 2017 | Resin | 35x38.5x54cm

우리는 원하는 것을 꿈꾸고, 이루어 가며 살고 있는가?

나의 작업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은 불안한 현실로부터 들리지도,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는 차단의 공간을 생성하여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비롯한 어떤 한 인간을 놓아둔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불안한 존재들에게 자신만의 도피처이자 위로의 공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Dream chaser v.1 | 2017 | Resin | 25x20x62cm



Dreamchaser v.2 | 2017 | Resin | 25x20x62cm



Dream chaser v.3 | 2017 | Resin | 25x20x25cm

## 신예진 Shin, Ye-Jin

1985. 한국 부산 출생  
미술 학사, 창원대학교, 창원  
조소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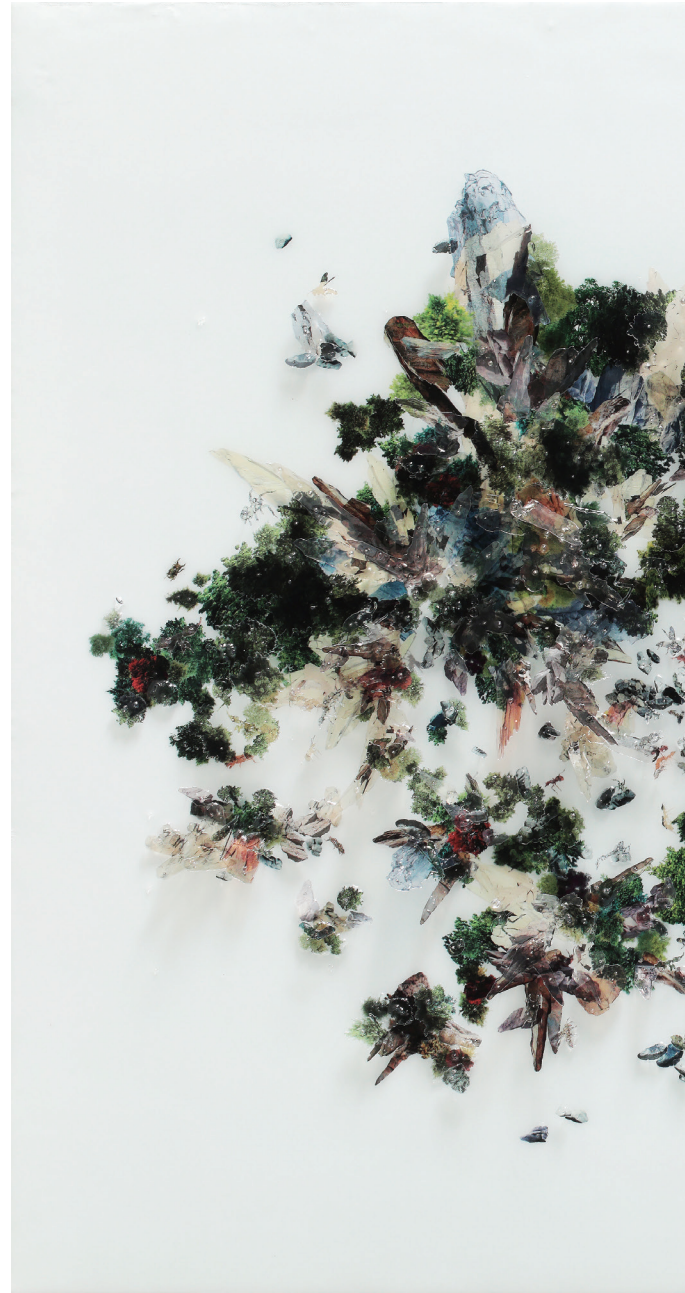
### 개인전

- 2015. 또 다른 자연의 시간 (스칼라티움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3. 감촉의 또 다른 시선 (갤러리이즈, 서울)
- 2012. 감각의시간-감촉으로 재구성한 사물 (갤러리비원, 서울)

### 단체전

- 2019. ISF 서울국제조각페스타2019 (예술의전당, 서울)
- 2019. 창원아시아미술제-상상피크닉 (성산아트홀, 창원)
- 2019. 봄, 날아올라 피다 (성수동 대림창고, 서울)
- 2018. The Next Big Movement (키미아트, 서울)
- 2018. 김해서부문화센터개관기념전- 언더그라운드 (김해서부문화센터, 김해)
- 2018. INTERCITY- 경계의 무늬 (김해문화의전당/단원미술관, 김해/안산)
- 2017. POSCO the great artist (포스코미술관, 서울)
- 2017. Emergent Property (키미아트, 서울)
- 2017. 조형, 의미와 형태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광주)
- 2017. 산수심원기 (서호미술관, 남양주)

평소 작업의 목표는 어린 시절 기억 속 자연의 모습을 소재로 그 이면을 탐구하고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이란 광범위한 의미에 도달하지 못했던 어린시절의 나는 높이 솟아있는 세모난 산을 보며 누군가 나무와 돌들을 켜켜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다. '산을 올리는 방법'은 그 시절 나의 시선이 반영 된 이미지들을 조합한 산의 평면도이다. 직접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이미지들로 나무와 돌들을 만들고 겹치고 쌓는 과정을 반복하며 새로운 산의 형태를 제시한다.





산을 올리는 방법 | 2019 | 판넬위에콜라주- UVfilm, 에나멜도료, 크리스탈레진, 유리비즈 | 162,2x97x10(h)cm

## 양리에 Yang, Lee-Ai

1970. 한국 경남 창원 출생

미술학사, 국립창원대학교, 한국

미술석사, 국립 창원대학교, 창원, 한국

### 개인전

- 2019. 제5회 개인전 「상상」 (마산/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24갤러리)
- 2018. 제4회 개인전 「얼굴」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창원/창원문화원갤러리)
- 2016. 제3회 초대 개인전 「실험실」 (진해/갤러리 몽 )
- 2016. 제2회 개인전 「LIGHT」- 빛 속에서 보다. (창동예술촌/space1326)
- 2015. 제1회 개인전 「집 + 노래 = 이야기」 (창원/성산아트홀)

### 단체전

- 2019. 제2회「별에게 말을 걸다. 展」- (재)창원문화재단 기획초대전 (창원/성산아트홀)
- 2018. 「나의 초상」기획초대전 (마산/문신미술관)
- 2005~2018. 경남 현대조각가 협회전 (마산.창원/성산아트 홀)
- 2005. 『양리에 전』 - 제 8 회 경남전업작가회주관 아트 페어 (창원/성산아트 홀)
- 2000~2018. SOO 조각회전 (창원/성산아트 홀)
- 1997.~2000 마산 청년미술제 (창동갤러리,대우갤러리,문신미술관/마산)
- 1993.~1998 제3조각가협회전 (부산,울산, 대구,익산문화예술회관,대우갤러리/마산)
- 1997. 역사와 환경전 (민속박물관/서울)
- 1996. 용지야외미술제 (용지못/창원)
- 1995. 제1회 돌섬비엔나레 (돌섬/마산)
- 1994. HUMAN-TIDE 한일 교류전 (나가노문화회관/일본)

2019. <별에게 말을 걸다> 展에서 마산의 시인 이선관 선생님의 '척박한 이 땅에 땅심을' 시에 화답하는 의미를 작은 씨앗의 무리로 형상화하여 흩날려 모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아울러 아픔을 치유하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길 바랐던 시인과 한 마음이 됨을 시각화 함. \_작은 씨앗이 품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의 가능성을 몽환적 이미지를 coper wire로 드로잉 (작업방법: 구리실을 이용하여 코 바늘로 뜨개질하여, 설치함)







작은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 2019 | copper wire | 가변 설치

---

## 오혜선 Oh, Hye-Seon

1974. 한국 서울 출생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 전공 졸업

###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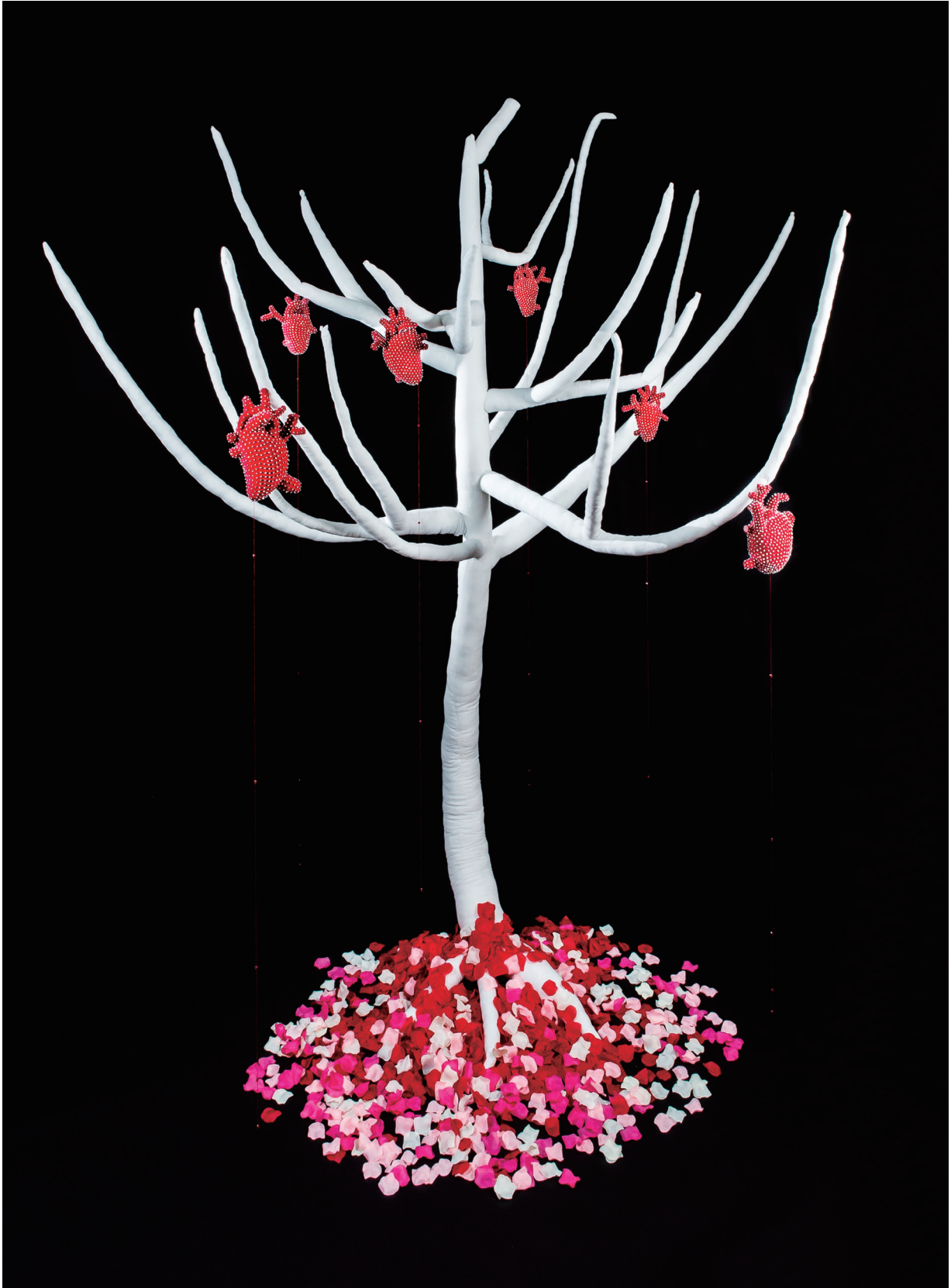
- 2019. 제9회 국제 조각 페스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8. 제6회 개인전 Under (갤러리 팔레 드 서울 신진작가 당선 전, 서울)
- 2016. 제5회 개인전 Heart (아트 스페이스 너트 선정작가 전)
- 2013. 제4회 개인전 SEE-The Way We Live Now (화봉갤러리 신진작가 공모 당선 전, 화봉갤러리, 서울)

### 단체전

- 2019. Beauty in the Art (삼성디지털프라자, 서울)
- 2019. 물고기의 꿈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 2018. 한 여름 밤의 꿈 (예술마루, 여수)
- 2017. 봄을 쫓는다 (단원미술관, 안산)
- 2017. 가로수길 BLUE FISH (닥터자르트 필터스페이스 및 가로수길 일대, 서울)
- 2016. 일장추몽 (남산한옥마을, 서울)
- 2015. PLAYGROUND (소담미술관, 화성)
- 2015. 세종문화회관 예술축제 - 소나기 메르스 브레이커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5. 내 마음속에 상상정원展 (예술마루, 여수)

---

이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를 수목장으로 보내드린 뒤 나무가 되어버린 아버를 위해 제작한 것이다. 나는 심장이 멈춰 돌아가신 아버지께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 절대 멈추지도 않고 반짝 반짝하고 예쁜, 새 심장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려서 아빠가 편안하게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아버지께 새로운 심장을 선물하고 조금은 편안해지고 싶었던 나 자신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들이 이 작품에 담겨 있다.



Tree | 2016 | Fabric, 솜, 큐빅, 비즈, 꽃잎 | 가변 크기, 설치, 대략 260X230X280(cm)

## 이상길 Lee, Sang-Gill

1964. 한국 광주 출생

조소 학사, 서울대학교, 한국

조각학과 석사, 다마(多摩)미술대학, 동경, 일본

### 개인전

- 2016. 미부아트센터 (부산)
- 2006. 김종영미술관 - 오늘의 작가 (서울)
- 2004. 선 갤러리 (서울)
- 2003. Red Mill Gallery (Vermont, USA)
- 2000. INAX Gallery (東京, 日本)

### 단체전

- 2014. METAL WORKS TODAY (김종영미술관)
- 2013.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MarcopoloHotel, Hongkong)
- 2008. 부산비엔날레-바다미술제(부산)
- 2007.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코엑스)
- 2005. 금속-그에 한 분석과 서정적 접근(모란갤러리)
- 2004. 신소장품전 2008 (국립현대미술관)

미지(우주)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잔잔한 고요함을 반짝이며  
산란하는 점(별)으로 표현하였다.

한 점, 한 점, 반짝이는 별들은 서로 어울려 춤을 춘다.

생동하는 無言의 무한한 울림에서 또 다른 희망을 상상해 본다.





Contact-별빛 소나타 | 2019 | 스테인리스, 강화유리 | 260x220x90cm(h)

## 이정희 Lee, Jung-Hee

1983. 한국 경기 부천 출생

미술학사, 창원대학교, 한국

미술학석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창원, 한국

### 개인전

- 2018. 'Jean한 드로잉전' (더갤러리, 창원)
- 2016. 'Jean한 드로잉전' (해금강테마박물관, 거제)
- 2015. '체육셈 하숙집' (갤러리 몽클, 진주/ 스페이스1326, 창원/갤러리 원, 김해)
- 2011. '고무나라 RUBBER BAND 100%'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갤러리아트 3325, 창원)
- 2010. '손목에 긴 노란고무줄' (아트갤러리 모금,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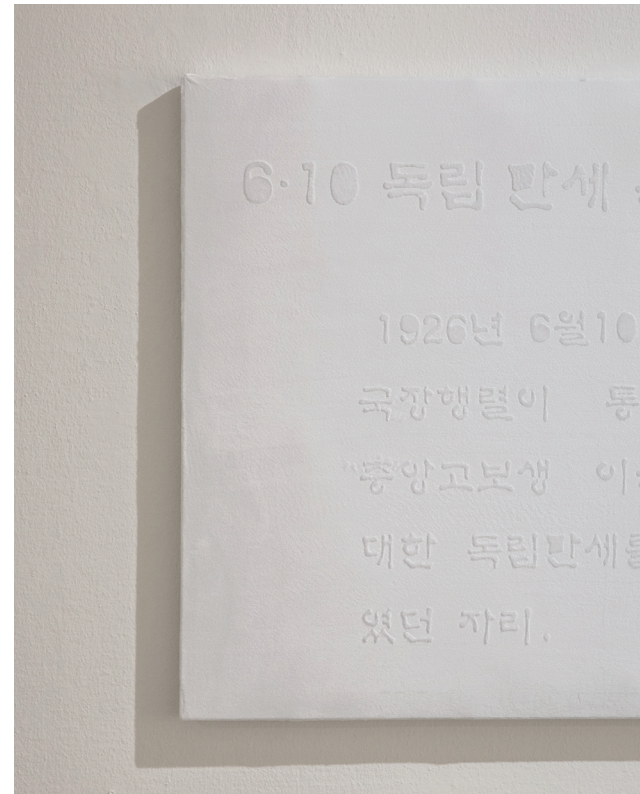
###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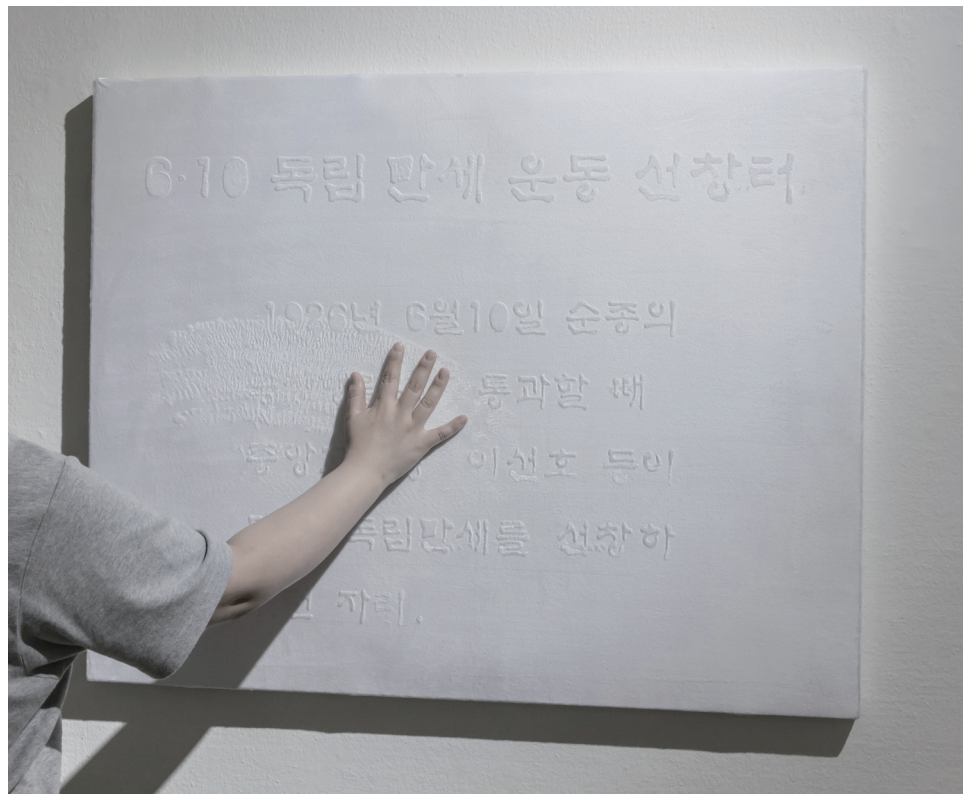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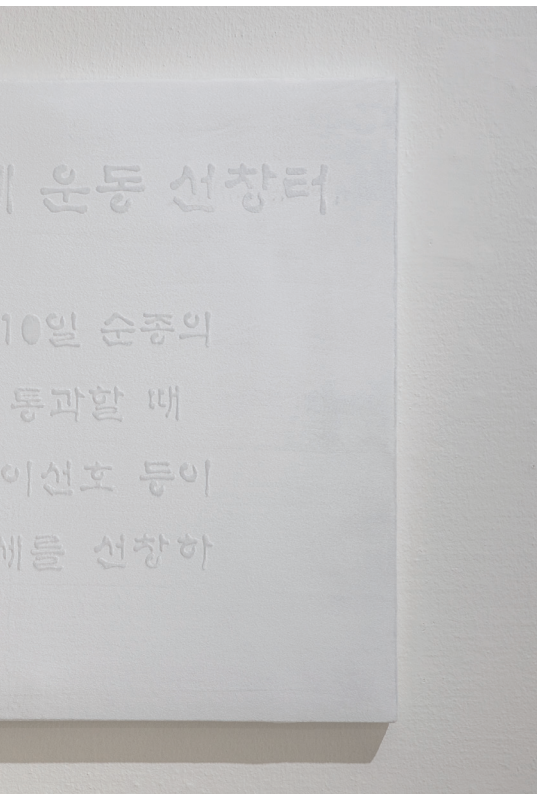
- 2019. 문자문명전 (성산아트홀, 창원)
- 2019. 실마리로68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 완주)
- 2018. N아티스트 2018-새로운 담지자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18. 불꺼진 우신장 (우신장여관, 창원)
- 2018. 믿지 못하는 자들의 전시 (휴갤러리, 김해)
- 2018. 바람의 언덕-바래길 (남해 바래길 작은 미술관, 남해)

담요에 그은 흔적들은 쉽게 사라진다. 사라지길 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의해 사라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기도 한다.

100년 전 그날(독립운동)의 흔적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표지석 마저도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잊혀져가고 있다.





잊혀지다 | 2019 | 패널에 담요원단 | 73x91cm

## 이후창 Lee, Hoo-Chang

1979. 한국 서울 출생.

홍익대학교 조소과 박사과정 수료

### 개인전

- 2019. 이후창초대전 "Castle of Desire욕망의 왕국" (갤러리업생트-아트플레이스, 서울)
- 2018. 이후창초대전 "ILLUSION 일루전" (서경갤러리, 서울 (서울경찰청장 표창))
- 2017. 이후창초대전 "ILLUSION 일루전" (EK Art Gallery, 서울)
- 2016. 이후창초대전 "ILLUSION 일루전" (Gallery WE, 서울)
- 2016. 이후창초대전 "ILLUSION 일루전" (장은선갤러리, 서울)

### 단체전

- Art New York, Art Palm Springs, CONTEXT Art Miami, LA Art Show, 미국
- The Shanghai Art Fair , 중국
- Asia Contemporary Art Show, 홍콩
- Art Taipei, 대만
- Affordable Art Fair, 싱가포르
- KIAF, 화랑미술제, SOAF, AHAF, 서울아트쇼, 부산아트쇼, 대구아트페어, 아트광주, 한국 등 350여회

이후창은 '유리조형의 마이스터'로 불릴 정도로 유리 재질을 활용한 흥미로운 작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소 인간의 타자성, 상실감, 소외, 이중성, 욕망 등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사를 꾸준히 작품에 담아왔다.

이후창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꿈꾸길 권하고 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뢰비우스의 띠" 형태의 조명 작업이나 왕관을 표현한 빛 작업 등 이후창 작업의 무게중심은 '그래도 희망'에 방점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김윤섭 미술평론가 글 발췌







욕망의 왕국\_왕관 | 2019 | 스텐레스스틸, 유리, 빛 | 가변설치

---

## 임수빈 Lim, Su-Bin

1989. 프랑스 파리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조소) 박사과정

중국노신미대(鲁迅美术学院) 조소과 대학원 졸업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 2014. Natural Emotion\_GalleryArt Space H

### 수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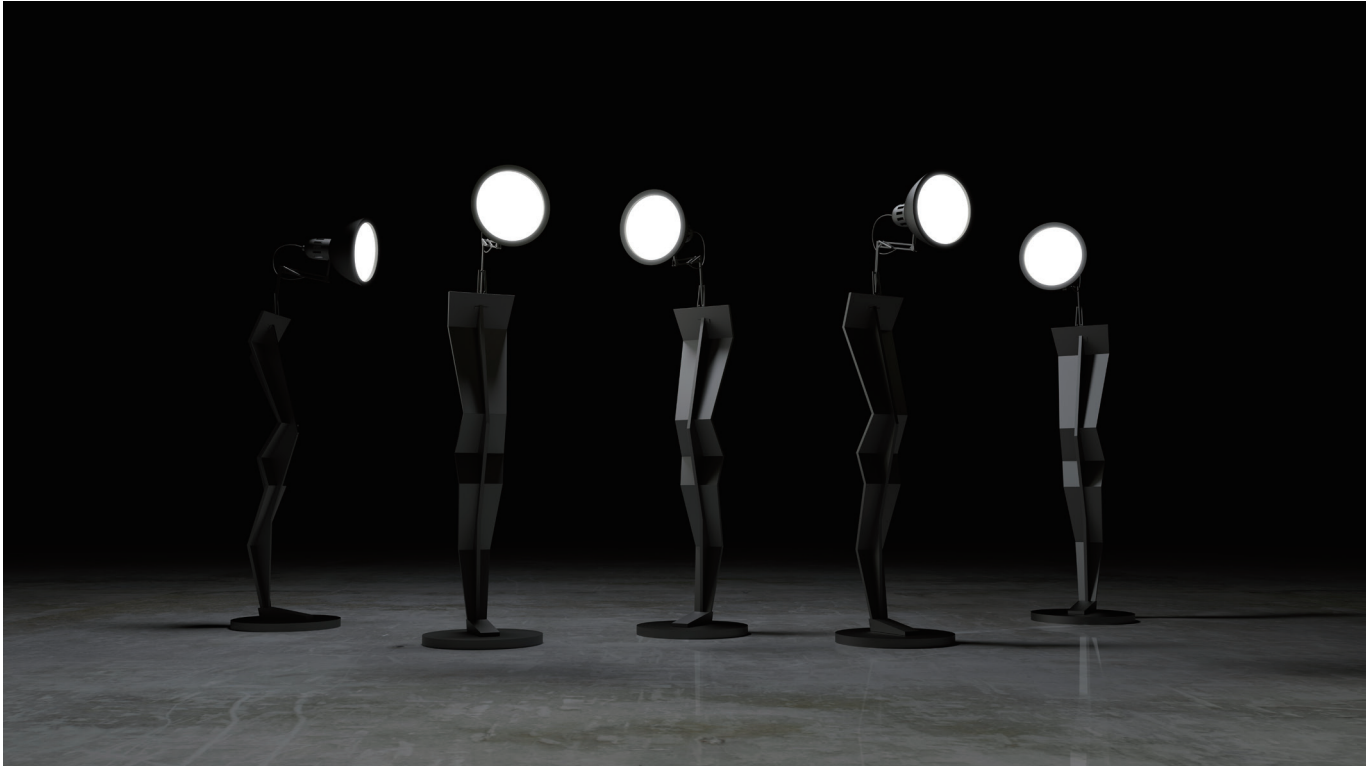
- 2016. 제2회HengLong조소창작대회입선 (HengLongcenter)
- 2014. 제12회서울미술대상전우수상 (경희공미술관)
- 2013. 제32회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 (경희공미술관)
- 2012. 제2회중외그룹JW"Young Art Award"대상 (공평갤러리)
- 2012. 제22회MBC 한국구상조각대전입선 (성남아트센터)
- 2012. 제31회대한민국미술대전구상부문입선 (경희공미술관)

### 단체전

- 2019. 제9회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
- 2019. MBC현대조각초대전 (춘천문화방송MBC)
- 2019. 통일기원조각전 (오두산전망대)
- 2018. 제26회아시아현대조각협회전 (중국하이난Just Space Gallery)
- 2018. Time - Space 그룹전 (Ponitive Space)
- 2018. 한국조각가협회파주지부창립전 (Gallery the Chai)
- 2018. Seize+1 (홍익대학교현대미술관)

---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관객이 다가갔을 때 고개를 돌려 일제히 관객을 응시한다.



시선폭력 | 2019 | bronze, light, steel, motor | 500x500x1800(mm)



eye-I | 2018 | PLA, chromium plating, acrylic panel | 400x100x400(mm)

## 장용선 Jang, Yong-Sun

1980. 한국 서울 출생

환경조각학과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환경조각학과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 개인전

- 2019. WHERE IS YOUR QUERENCIA?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8. 불안한 리드 - 서울문화재단 지원전시 (스페이스 나인, 서울)
- 2017. RECEPTACLE OF LUMINOSITY (갤러리 도스, 서울)
- 2017. 잠재적 천연기념물 (대안공간 눈, 수원)
- 2014. BEYOND THE SILENCE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등 총 9회

### 단체전

- 2019. Sculpture Space 오픈스튜디오 (Sculpture Space, 유티카, 뉴욕, 미국)
- 2019. 아트 인 더 포레스트 2019 (플라밍고 다이라이 조각공원, 빈푹, 베트남)
- 2019. 옆집에 사는 예술가 (경기문화재단/김포문화재단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김포, 경기도)
- 2019. 서울국제조각파스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9. 아트경기 아트리빙하우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1986, 수원, 경기도)
- 2019. 발신자 조회, 열두번째 오픈스튜디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8. DMZ 평화정거장 예술창작전시 (경기관광공사 DMZ 캠프그리브스, 파주, 경기도)
- 2018. NORDART 2018 (카를스뤼테 미술관, 뷔델스도르프, 독일)
- 2018. 정신과 시간의 방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 2018. 강원, THE STORY 평창올림픽 기념전시 (강릉아트센터, 강원도)

작품은 산의 모습 같기도 하고 섬의 모습 같기도 하다. 산과 강 그 위에 떠있는 섬은 우리 삶의 터전을 보여준다. 삶의 터전은 동지가 되듯 온 몸으로 빛을 받아들인다. 작품이 머금은 빛은 작품내부에서 발산하여 공간으로 수렴한다. 제 모습을 은근하게 투광하는 동지는 따스해 보인다. 알을 품은 새는 마치 자식을 품에 끌어안은 인간처럼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동지는 빛의 공명으로 가득하다.

작품은 '성스러운 바다'로 불리는 바이칼(Baikal)호수의 지형을 형상화 하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간직한 그곳의 순수함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Darkmatter 170812 | 2017 | scorched stainless steel | 105x245x45cm

---

## 전종무 Jun, Jong-Moo

1961. 한국 서울 출생

미술학사, 동국대학교, 한국

미술교육학 석사, 동국대학교, 한국

### 개인전

- 2011. 오늘도 달린다만은 (예술의전당)
- 2006. 조우된 아름다움 (노원문화예술회관)
- 2004. 만퉁 에서 발견으로 (세종문화회관)
- 1996. Realism에 관한 prologue (도올 아트타운)
- 1995. 황후의밥-결인의 찬 (갤러리 마담포라)

### 단체전

- 2018.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
- 2017. Sincerity (강릉시립미술관)
- 2015. 일,한미술교류전 (한국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2014. 한국현대조각의 아카이브 (Kosa space gallery)
- 2012. Art Asia (Miami,USA)
- 2010. WITH전 (한전갤러리)
- 2009. 평화누리 야외조각전 (임진각 평화누리)
- 2005. Seou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in Sydney (Vencent Art Gallery)
- 2003. 우리시대의 삶과 해학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신관)
- 1992. 신화. 설화. 우화전 (모란미술관)

---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아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의심과 궁금증에 기반한 통찰(insight)로 창의적인 사고의 결과물인 작품의 탄생은 호기심으로 출발한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가득했던 나는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  
2019,  
Mixed media,  
가변적 규격

## 정기웅 Chung, Gi-Woong

1971. 한국 서울 출생

환경조각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환경조각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 개인전

- 2019. L's go 전 (Gallery KOSA)
- 2018. THE GENESIS OF "L" 전 (한가람미술관)
- 2014. 'BODY-FROM LIFE' 전 (KOSA SPACE 갤러리)
- 2012. 'LIFE' 전 (갤러리 이즈)
- 2004. 정기웅조각전 (예일 화랑)

### 단체전

- 2014 ~ 2019. ISF 서울국제조각 페스타 (한가람미술관)
- 2019. YAP'19 청년미술프로젝트 (대구컨벤션센터)
-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 문화제조창)
- 해외초대전 1997~2019 모로코, 독일, 인도, 이란, 튀니지,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크로아티아, 말레이시아, 터키, 대만, 네팔, 몽골, 러시아, 필리핀 등
- 국제 아트페어 2005~2019 화랑미술제 (예술의 전당) / 상하이 아트페어 (중국 상해) / 아트 상하이 (중국 상해) /아트 타이페이 (대만) / KIAF2014 (서울 COEX) / 대구 아트페어 2014 (대구 COEX) / 아트아시아(일산 KINTEX) / 허버아트페어(홍콩)
- 기타 단체 전 : 120여회

사진의 강점은 재현이고, 조각의 본성은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평면에 출력된 예술이지만 2차 창작을 거친 분할된 사진들은 입체적으로 재구성되고 분할된 공간을 앞, 뒤, 좌우 사방에서 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들에게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삶에 대한 주제를 부여하고 다양한 조형성을 실험하는 것이 제 작업입니다.







L2019-runs-adam& eve | 2019 | 렉산 패널, 사진 | 휴먼스케일 가변설치

---

## 정택성 Jeung, Take-Sung

1975. 한국 부산 출생

조형예술학사, 파리8대학, 파리, 프랑스

조형예술석사, 파리8대학, 파리, 프랑스

### 개인전

- 2015. 3회 개인전(성산아트홀/창원)
- 2004. 2회 개인전(대우갤러리/창원)
- 2001. 1회 개인전 (갤러리미즈/서울)

### 단체전

- 2019. ISF국제조각페스타(한가람미술관/서울)
- 2019. 각과 불각의 경계(한국미술관/서울)
- 2018. ISF국제조각페스타(한가람미술관/서울)
- 2018. 한국현대조각초대전(춘천MBC/춘천)
- 2017. 부산바다미술제(다대포해변/부산)
- 2017. 부산조각제-지역을 넘어 세계로Ⅳ(부산예술회관/부산)
- 2016. 창원미술대제전(성산아트홀/창원)
- 2016. 경남 건축문화제-조각, 건축 그림에도 불구하고(3.15아트센터/창원)
- 2015.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곤라드호텔/홍콩)
- 2015. 광화문르네상스전(조선일보미술관/서울)

---

본 작품은 타워 형 박스 위에 다양한 색상의 페인트가 각 면을 타고 내리고 표면에서 터지는 등 유기적인 형태들로 구성된다. 큰 외형에서 드러나는 박스 형태는 건축적인, 도시적인, 현대적인 것을 상징하며 각각각색의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 페인트 흘러내림은 현대적인 것에 상반된 자연을 상징한다. 서로 다른 이 두 이미지는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여유리즘을 보여주며 현대도시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에 대한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Colorful bomb,**  
2018,  
Birch plywood, Water paint,  
1400×1600×1840

## 최수환 Choi, Su-Hwan

1979. 한국 경남 마산 출생  
창원 대학교 미술학과  
베를린 미술대학

### 개인전

- 2018. 유령연습 (공간 힘, 부산)
- 2015. 두 개의 문 (KWADRAT, 베를린)
- 2012. Installation (Plattenpalast, 베를린)

### 단체전

- 2019.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다대포해수욕장, 부산)
- 2019. 아시아의 북소리 (Vtartsalon, 타이페이)
- 2018. N아티스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18. 무제 (KWADRAT, 베를린)
- 2017. ART IN MANF (성산아트홀, 창원)
- 2017. 위-플레이 (3.15 아트센터, 창원)
- 2017. Small (Sexauer 갤러리, 베를린)

철거지역에서 가져온 두 개의 문은 철 구조물 속에서 마주보며 설치되어있다. 두 개의 문은 철 파이프와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람자에 의해 문이 움직일 때 맞은편의 문도 동시에 열리거나 닫힌다. 아무도 없이 반응하는 문 앞에서 관람자는 자신의 부재를 바라보게 된다.





함께, 혼자 | 2017 | 철, 나무, 베어링 | 180x281x240cm

# A PROLOGUE TO NON-SCULPTURE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Pre-Biennale

## 비조각의 프롤로그

2019.12.04(수) ~ 12.22(일)

성산아트홀 제4전시실(2층)

발행인 \_ (재)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_ (재)창원문화재단

발행일 \_ 2019. 12

주최 \_ (재)창원문화재단

주관 \_ (재)창원문화재단, 한국조각가협회

총괄운영 \_ 김재성 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팀장

총괄기획 \_ 손지영 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팀 과장, 김숙경 창원조각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큐레이터 \_ 이후창 한국조각가협회 사무국장

차상민 창원조각비엔날레 큐레이터

디자인·제작 \_ 애드플러스(055. 224. 2121)

이 도록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창원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181(용호동)

Tel. 055) 719-7832 www.cwcf.or.kr



